

# 책과 독자 연결하는 충실한 중개인

## 독특한 변천사 지닌 대전 '문경서적'

대전역에서 걸어서 10분 남짓, 충남도청을 비껴 바라보고 있는 선화동 네거리에 위치한 문경서적은 30년 가까운 세월을 대전의 독자들에게 책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중개인 역할을 충실히 해온 서점이다.

오랫동안 한 지역을 지켜 온 서점의 이력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독서경향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것은 그다지 드문 일은 아니다. 그러나 문경서적의 경우는 단순히 대전지역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반의 독서경향과 나아가 출판계 흐름의 일면을 증언해주기에 충분하리만큼 독특한 변천사를 지니고 있다.

문경서적이 처음 문을 연 것은 1963년. 충남 청양이 고향인 홍性昌씨(55)가 서울에서 일본 서적 수입상을 하고 있던 친지의 "해볼만하다"는 권유를 받아들여면서였다.

5·16 직후의 혼란기였던 당시는 우리 출판업의 전반적인 미성숙과 '책'으로 찍어낼 만한 우리나라의 문화적 성과물의 미축적, 그리고 일본어교육세대가 주 독자층을 형성했던 사정들이 맞물려 日書의 수요가 가히 폭발적이었었다.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에 힘입어 은행동에 5평짜리 가게를 얻어 시작한 日書 수입·판매는 그에게 상당한 성공을 안겨다 주었다.

70년대에 들면서 홍사장은 미국 등 서구의 원서들도 함께 취급하기 시작했는데 이 또한 서구문화, 혹은 서구의 학문적 성과나 이론에 대한 유입이 확대되어가던 당시의 시대상에 따라 洋書에 대한 독자수요가 늘어남에 따른 것이었다.

대전 지역의 유일한 원서 수입상으로 자리

를 잡은 문경서적은 1978년 국내 단행본을 취급하면서 그 위치를 현재의 선화동으로 옮겼다.

"그즈음 문학, 예술, 기술공학 등 다양한 방면에서 우리나라 단행본들이 쏟아져나왔습니다. 물론 독자층도 급격히 늘어났구요. 이 반면에 日書의 수요는 급격히 줄어들었는데 이는 아마 우리말세대가 본격적인 독자층으로 성장했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나라 독서계에 일종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진 것이지요."

큰 서점이라야 20평 남짓이던 그 시절, 시내 중심가도 아닌 곳에 50평 규모의 서점을 개설하는 그를 말리려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염려와는 달리 판매실적이 좋아 문경서적은 '한강 이남에서 최고의 판매량'을 자랑하는 호황을 누리기도 했다.

日書 수입·판매시절, 정부의 외화절감정책 때문에 마음껏 책을 수입할 수 없어 곤란을 겪은 일 외에는 비교적 탄탄대로를 걸어 온 문경서적은 최근 새로운 '위기'를 맞고 있다. 인근에 대형서점들이 들어서면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원서고객이 줄어들었고 설상가상으로 지난해부터 시작된 지하상가 공사도 인해 고객의 수가 현저하게 줄어든 것.

현재 매장규모는 1,2층을 합해 총 80평. 2층의 30평을 원서 진열에 할애하고 있어, 문경서적이 국내 단행본 진열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매장은 1층 50평이다. 두사람이 나란히 서기도 힘든 비좁은 통로와 소박한 계산대만 제외하고 매장의 전 공간을 서가가 차지하고 있는데, 꼼꼼하게 분류하여 천정까지 닿도록



쭈뼌히 꽂고도 모자라 틈새마다 덧쌓아 놓은 책들을 보면서 문경서적이 또 한번 치루어야 할 '변화'의 필요성을 어림잡을 수 있다.

"10여개의 대학과 대덕 연구단지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지역 서점의 매출액은 인구수가 비슷한 광주에 비해 반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과 가깝다는 지정학적 조건 때문에 많은 고객들이 서울로 가서 책을 구입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홍사장은 서울의 대형서점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지방서점에서도 가능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고 있으며, 이를 위해 내년봄 서점확장공사도 계획하고 있다.

한때 대전지역 서적상연합회 회장을 역임하

기도 했던 그는, 그래선지 현재의 우리나라 도서유통구조에 대해 할 말이 많다. 특히 "순수학문을 상업적 술수로 오염시키는 채택료는 하루빨리 없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최근의 출판물 홍수사태에 대해서도 "우선은 반가운 일이기도 하나 악서에 의해 양서가 구축되는 일이 없도록 출판인들은 자성과 소명 의식을, 서점인들 또한 지혜와 정보가 필요하다"는 말을 빼놓지 않는다.

책 구하기 힘든 오지에 마을문고를 만들어 주면서 서점인으로서의 가장 큰 보람을 느꼈다는 그가, "책과 건강한 독자와의 만남을 위해 서점이 존재한다"는 스스로의 다짐을 버리지 않는 한 문경서적의 '위기'는 언제나 새로운 발전을 예고하는 계기가 될 것에 틀림없다.

—박남정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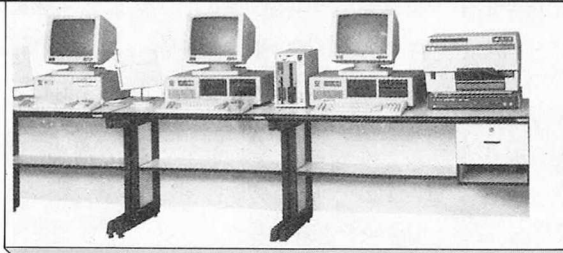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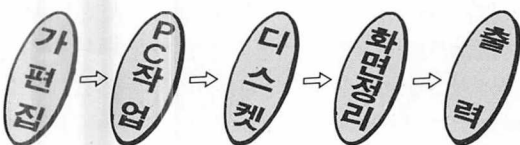
### 출판회소식

## 출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돕겠습니다.

### 사식비를 줄이십시오!

PC로 입력하신 원고도 디스켓만 주시면 교정지나 인화지로 처리해 드립니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십시오.



기획/편집/디자인 전문

# M 밀알문화사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 2가 231-2  
TEL. 268-5991/279-2626 FAX. 268-5991

### 전산 및 출력시스템

- 편집기능이 다양하며 화면에서 편집이 가능
- 작업기능이 신속하여 다량의 원고처리 가능
- 서식, 도표, 그래프 등 그래픽 기능과 이미지 처리 가능
- 한글, 한문, 일어, 영어 등과 서체, 급수 등을 자유선택
- 교정지(300, 600 LBP)로 교정후 인화지로 출력가능
- 인화지 출력이 불필요한 경우 포지필름으로도 출력가능
- 카다록 등 고급 인쇄물제작 위해 수동식자기 보유

카렌다/카다록/박 스/학위논문/식순지/사보 및 월간지/각종 안내장/단행본 및 전집류/각종 홍보물제작

